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 (5)한마음초등학교

“숲과 자연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5학년 28명 숲속 나들이
소나무 만지고 솔잎 싸움
숲속 추억만들기 꼭 빠져
“친구와 더 가까워졌어요”



한마음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이 숲속 추억만들기에 앞서 줄놀이 하고 있다.

“숲에 들어오니 코가 시원하게 뻥하고 툭리는 것 같아요.” “빨갛게 잘 익은 커다란 산딸기인줄 알았는데 독초인 천남성 열매래요.” “솔잎싸움 이랑 줄놀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갑자기 불어 닥친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풀어내는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숲길이 요란하다. 김남희 숲연구소 꿈지락 대표의 '연결' 주제 숲학교에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놀이에 흠뻑 빠졌고, 잔디 위를 뒹굴고, 자연의 소중함까지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마음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28명이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의 다섯번째 손으로 19일 제주의 명품숲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 초대됐다. 김형철 교감을 비롯해 고영혜 교무부장, 양영훈·강은지 교사가 이날 아이들과 숲나들이에 동행했다.

처음 숲에 들어선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몸을 움츠렸다. 그

러나 분위기는 금세 반전됐다. 줄넘기, 뒤로줄넘기, 2인 줄넘기, 훌라후프, 2인부터 점점 인원수를 학생 전원인 28명까지 늘리며 진행한 줄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 줄 하나로 시작된 여러가지 게임은 아이들에게 협동심과 배려심, 성취감을 배워주며 소중한 추억 하나씩을 선물했다. 놀이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배워준 시간이었다.

놀이를 통해 따뜻하게 몸을 덥힌 아이들은 숲길을 걸으며 소나무를 만지고, 솔잎싸움을 하고, 천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과 한뼘 더 가까워졌다. 꿈지락에서 나눠준

여러가지 모양의 뿔린 종이를 하늘을 보고, 소나무 껍질에 대보고, 친구의 얼굴을 비춰보며 한가지 모양에도 다양함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그리고 매의 눈과 뱀의 눈으로 자연을 관찰하는 거울인 하늘경으로 동물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도 느꼈다. 숲에선 모두가 즐거웠고, 모든 것이 가능했다.

숲해설사이자, 유아숲지도사인 김난희 대표는 “숲과 사람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연결'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숲과 인간이 연결되듯 사람과 사람이 맞잡은 손에서

관계가 시작되는 모습을 놀이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주 숲을 찾고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 자연의 고마움에 대해 잊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당부했다.

김동건·동환·동욱 세쌍둥이는 “학교 밖을 나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즐거운 줄놀이도 하면서 친구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솔잎싸움 이랑, 천남성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자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고 했다.

김형철 교감은 “자연친화적인 놀이와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이 매우 좋고 앞으로도 유익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됐으면 한다”며 “특히 지역의 자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고향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남겨주면, 어른이 되어서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영훈 교사는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은 직접적이지 않고 한정적인데 숲학교를 통해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매우 유익했다”며 “교과서적 접근보다는 체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고, 어릴적 나뭇잎싸움도 했었는데 옛 기억도 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만족한다”고 전했다. 백금탁기자

지난해 제주지역 아동학대 335건

매년 11월 19일로 지정된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 13회째를 맞이했지만, 제주도내 아동학대 사건은 줄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614건, 2017년 626건, 지난해 6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통해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진 것은 2016년 276건, 2017년 344건, 지난해 335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는 지난해 다소 감소했지만 2013년 135건에 비하면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실제로 지난 4월 도내 한 펜션에서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4개월 난 말의 머리를 누르고 때리는 등의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지난 9월에는 자신의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B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제주지역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신뢰 회복 최선 다할 것” 축산농가 자정 결의대회

제주를 뒤흔든 축산분뇨 무단 유출 사태에도 여전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제주 축산업계가 자정노력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대한양봉협회 제주지회와 제주주마생산자협회는 19일 농어업인회관 2층에서 '축산농가가 드리는 대국민 약속'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축산업은 소비확대와 육종개량, 시설현대화 등으로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발전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안보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가축질병과 축산환경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축산업을 위해 ▷동물의약품 안전 사용기준 준수 ▷질병방역 수시 점검 ▷가축분뇨 무단 배출·소독 의무 위반 자체 점검 및 배제 등을 다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은범기자

제주지법 고유정 사건 재판 합친다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사건
내달 2일 첫 병합 공판 진행

법원이 고유정(36)의 전 남편 살인 사건을 의붓아들 살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1월말에는 결심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고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해를 넘기게 됐다. 앞서 검찰은 고씨를 의붓아들 A

(5)군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추가 기소하면서 고씨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면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법원에 병합 심리를 신청했다. 또 고씨 변호인 측도 두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에 모순된 점이 있다며 병합 심리를 원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남편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전 남편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의붓아들 사건과 전 남편 살해 사건을 합친 첫 병합 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주거형 분양 휴양콘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속보=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안에서 영업중인 휴양콘도미니엄 씨사이드아덴 사업자가 서귀포시의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본보 7월 12일, 8월 4일, 10월 31일자 보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사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0월 사업자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데 이어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0월 21일 씨사이드아덴 사업자가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이달 12일 결정문을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기각 사유로 “신청인에게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씨사이드아덴은 콘도 공역자 보호 위반과 주거용 분양금지 위반으로 서귀포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2차 행정처분으로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리자 시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조만간 사업자에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사업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후 즉시 항고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멸종위기종 ‘붉은박쥐’ 자연의 품으로...

제주대 야생동물구조센터
용담 주택가서 구조·방사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센터장 윤영민)가 천연기념물 45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종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관심대상종으로 분류된 붉은박쥐(사진) 1마리를 구조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붉은박쥐는 지난 18일 제주시 용담동 주택가 2층 건물에서 발견됐다. 동면을 위해 건물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밀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구조센터는 19일 서식지로 확인된 구좌읍 김녕리 만장굴 안에 붉은박쥐를 방사했다.

붉은박쥐는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체 수가 현저히 낮다. 제주에서는 2008년과 2016년 만장굴에서 각각 1마리가 조사된 이후 관찰되지 않았다. 진선희기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은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